

새 책

▶혼자가 혼자에게 (이병률 지음)=작가는 자신을 '혼자 사람'이라 가리킨다. 책 속에 자연스레 혼자 있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걷고, 혼자 적막의 시간에 놓이는 그 시간을 귀하게 보낸다. 그래서 좀 더 혼자 있는 이에게 마음이 기운다. 그들이 걸어내는 풍성한 시간에 호기심이 가는 까닭이다. 작가의 전작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이 주된 이야기였지만 이번엔 다르다. '혼자'인 자신과 '혼자'인 타인에 더 집중한다. 달. 1만5500원.



▶빈집문제-1천만 채의 충격 (마키노 토모히로 지음, 김현진 옮김)= '상속 받아도 임대할 수도 팔 수도 없는 집'.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사회 전반에 적용됐던 공식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담겼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겨나는 사회문제와 꼭 닮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한 일본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선택해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한다. 윌페이퍼. 1만4000원.



▶날개의 발명 (수 몽키 키드 지음, 송은주 옮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은 19세기 노예폐지운동가이자 여성 권의 선구자였던 실존 인물 사라 그립스의 삶을 담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시대, 세상을 거슬러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던 인물이다. 그녀의 집안 노예였던 헤티 핸드폴 두 여성의 놀라운 삶의 여정을 쫓는다. 아케이드. 1만7000원.



▶내일 쓰는 일기 (허은실 지음)=시인이 어린 딸과 함께 제주에서 보낸 1년의 기록이다. 지금까지 펴낸 시집, 산문집에선 읽을 수 없던 그의 내밀한 속내가 보인다. 계절의 흐름을 따라 성장해가는 시인의 일곱살 딸 '나린'을 지켜보는 것도 기쁨이다. 여전히 "바람이 오는 쪽으로" 달려가길 주저하지 않는 시인에게서 '성장'이 유년의 뒷면은 아님을 깨닫는다. 미디어창비. 1만5500원.



▶어찌 상스러운 글을 쓰려 하십니까 (정재홍 지음)=훈민정음 창제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477년간의 우리 교과서가 한눈에 펼쳐진다. 한글을 통해 민족정신을 지켜나갔던 선조들의 피어난 고투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글과 우리 교과서에 대한 넓은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시대별 교과서 속 이미지도 풍성하게 실렸다. 말모이. 1만8000원.



▶'아니요!'라고 당당히 말해요 (다니엘레 아리스타르코 지음, 이현경 옮김)=소크라테스, 찰스 다윈, 에이브러햄 링컨, 마하트마 간디 등 누구나 알 만한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건 부당한 일 앞 에 하나같이 "아니요!"라고 당당히 외쳤다는 것이다. 긴 세월을 걸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온 사람들의 도전과 용기, 인내의 기록을 담았다. 라임. 1만2800원.



과학은 진보하지만 정치는 퇴보하는 세상

바바라 터크먼의 '독선과 아집의 역사'

권력에 눈먼 통치자들 3000년간 나라 망치기

"인류는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통치술만은 다른 영역에 비해 별다른 발전 없이 정체된 느낌을 준다. 지혜란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통치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지혜와 상식과 유용한 정보 따위가 정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썩어 버리곤 한다. 고위관료들이 종종 이성이 지시하고 분별 있는 이기심이 시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냉철하게 사고하고 명민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두 번의 풀리처상 수상자인 터크먼은 20세기 최고의 역사가로 평가받는 바바라 터크먼은 '독선과 아집의 역사'에서 역사상 주요한 사건들을 풀어내며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아집과 독선으로 지나친 권력을 불태우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만 술한 통치 사례를 세계 역사의 주요 사건을 토대로 생생히 그리고 재미있게 다룬다. 앞의 인용문은 머리글 없이 시작되는 이 책의 본문을 여는 글이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 뒤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이 한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했는가를 설명해 나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키워 경찰국가로 군림해 온 미국은 대통령이 무려 다섯 번이나 바뀐 동안 베트남에서 악전고투를 계속했다. 많은 이들이 무지를 그 요인으로 꼽았지만 저자는 미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단언한다. 미국의 비밀정보기관은 유능했고, 특별조사단이 몇 차례 파견된 결과 전쟁이 미국의 대외신과 국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많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아둔함의 원형인 트로이의 목마, 면죄부를 판매한 레오 10



세, 부관참시까지 당한 클레멘스 7세 등 권력에 눈이 먼 오만한 통치자들을 살피고, 이 같은 일이 이어진 3000년 아집의 역사를 기술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책을 "정부의 죄악과 독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은 국민들의 불행은 다른 경외의 책"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위크는 저자를 "기만과 위선, 자만심의 가면 을 벗겨내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 평가했다. "20세기 역사가 가운데 이렇게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진 사람은 바바라 터크먼뿐"이라는 보그의 호평도 있었다. 조민·조석현 옮김. 자작나무. 1만8000원.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더 이상 '여성' 이라 주목 안해도 될 날을

막달레나 허기타이의 '내가 만난 여성 과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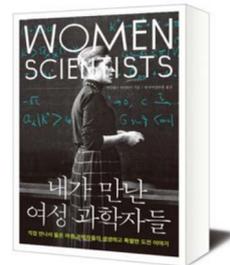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을 당연시했던 그 시대에 흑인이면서 여성인 이들의 처지는 오죽했을까.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가진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히든 피겨스'의 배경이다. 3명의 주인공들은 마침내 우주 개발 전쟁에서 주역으로 인정받지만 이중삼중의 두터운 문을 뚫은 결과다.

허기타이 화학자인 막달레나 허기타이가 쓴 '내가 만난 여성 과학자들'엔 그들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수많은 장벽을 넘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밟았던 여성 과학자들의 사연을 육성으로 들려준다.

저자는 마리 퀴리처럼 과학자 부부의 공동 연구 사례를 통해 당시 여성 과학자들이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낸다. 노벨상 명단에는 빠졌지만 그에 견줄만한 성과를 보여준 러시아, 인도, 터키의 여성 과학자들도 인터뷰했다. 프린스턴대학교 최초의 여성 총장이었던 분자생물학자 셸리 텔먼 등 고위직에 오른 여성과학자들도 소개하고 있다.

'성공한 여성'으로 불리는 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직장가정 양쪽을 살피야 했다. 중앙생물학자 에바 클라인도 그랬다. 그의 남편 역시 중앙생물학자였는데 집안일을 하찮게 여겨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가정주부'가 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것이 에바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저자가 '엔케이 세포'의 존재를 찾아낸 에바 클라인의 업적을 알리며 "실험실과 가정 양쪽 다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결론내린 건 아쉬운 대목이다.



여성 과학자들이 스웨덴 왕립 과학원 회장을 맡는 등 '유리 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여성으로서 더 힘든 현실은 여전히 보인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글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앞서 언급한 롤모델 제시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책을 바친다." 한국여성과학 올림. 해나무. 1만98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김성범의 '베트남 사상으로의 초대'



베트남 사람들의 신에 대한 사유를 살필 수 있는 푸둥티엔브엉 시장에서 열린 축제. 책에 실린 사진은 사진기자였던 저자가 직접 촬영했다.

"베트남 통해 분단 극복할 사유 탐색"



그가 처음 발디던 곳은 겨울 문턱의 하노이였다. 10여년 하노이에 머물며 틈이 날 때마다 베트남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 결실이 하나둘 책으로 묶였고 지난해엔 응웬 파이 트가 편저한 '베트남 사상사'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번엔 그의 시선으로 베트남 사상사를 풀어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베트남사회과학원원 철학원 객원교수인 제주출신 김성범씨의 '베트남 사상으로의 초대'다.

앞서 '베트남 사상사'를 번역 출간하며 밝혔듯, 그가 베트남을 주목한 데는 분단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뜻이 있다. 수천 년 동안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생존을 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베트남의 사유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한 가지 의문과 마주한다. "어떻게 단결하라는 말에

인민은 그저 단결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해 베트남 사상사를 파고 들었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더듬어갔다. 이 책은 베트남 사유의 큰 흐름을 풀어놓고 있다. 신화 등 구전과 기록을 가리지 않고 베트남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을 들여다봤다. 기원전 179년 어우락국이 남비엠티 멸망한 이래 938년까지 식민 통치를 받은 1000년이 넘는 북속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불교와 유교가 베트남으로 흘러들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선 베트남 고유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 프랑스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근대에 베트남 사유가 드러나는 양상은 우리나라의 동학, 위정척사, 개화 논의를 떠올릴 수 있다.

이같은 베트남 사상의 흐름은 호치민이란 인물로 모아진다. 저자는 호치민의 생애 가운데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장면까지 쫓았다.

긴 여정 끝에 그가 도달한 곳은 우리 민족이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상의 뿌리는 무엇인가. 베트남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푸른사상. 2만3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金海金氏 左政丞公派 入島祖 時享祭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도조이신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휘만희 할아버님 시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원 여러분께서 주변 종친들에게 널리 알려 함께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향제 안내

입도 4세 호조참판 봉 할아버님 시향제

일시 : 2019. 11. 3(일) 11시
장소 : 선릉리 673번지 앞밭오름

입도 6세 어모장군 계찬공 시향제

일시 : 2019. 11. 3(일) 13시
장소 : 구좌읍 하도리 1012번지 금불사 뒤 선영

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11시

장소 : 애월읍 광지리 847번지 광남발 선영

입도 7세 조용지 할아버님 시향제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6일 (일) 09시 30분

장소 : 제주시 연동 산80번지 염룡악 선영

입도조 묘역 제3차 정화사업 헌성금 모금 안내

- 목 표 액 : 6억원
- 모 금 액 : 5억원(2019년 10월 현재)

모금시한 2019년 12월 말까지
입금계좌 : 농협 351-1058-0284-83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종친회

헌성종친자 예우

- 정화사업 조성 기념비에 헌성자 성명, 기부액 명기
- 1천원 이상 헌성자 개인공덕비 근림

金海金氏 左政丞公派 宗親會 會長 金 柱 彦 拜上